

성구수상

영  
원  
한  
평  
화안  
병  
무

△신학박사 V

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 
이요

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 
에게 평화로다

이것은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천사  
의 노래로 유명하다. 그러나 그것  
은 단순한 종교적인 노래가 아니라  
인간의 가슴깊이에서 나오는 숙원임  
과 동시에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향  
해야 할 것인지를 가장 바로 가르친  
영원한 좌표이기도 하다.

이 노래는 히브리 시 문학의 한 귀  
절이다. 이 노래의 중심은 평화다. 희  
랍어로 「에이테네」로 된 히브리 원어  
는 「샬롬」이다. 이 말은 오늘의 이스  
라엘 사람들이 사람과 만나고 헤어질  
때 쓰이는 인사말로써 우리가 안녕하  
셨습니까 또는 평안히 계십시오와 통  
한다. 그것은 무엇보다도 언제나 전  
쟁의 참화와 공포속에서 그 역사를 이  
어온 민족의 비원인지 모른다. 사실  
상 「샬롬」은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  
다. 어서 전쟁이 끝나고 이 땅 위에  
평화가 와 달라는 기원의 표현이다.

그러나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그치  
는 외적인 평온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  
는다. 「샬롬」하면 그것은 동시에 구  
원(救援)이라는 뜻이 있다. 구원이란  
전쟁행위가 정지된 휴전상태와 같은  
것은 아니다. 전쟁의 원인이 되는 모  
든 것에서 해방이 될 때 참평화가 가  
능한 것이다. 그러므로 샬롬은 결코  
힘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정치 외교의  
수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 
그러한 평화관과는 그 바탕이 다르다.  
그러므로 「샬롬」은 전쟁의 정지에 그  
치지 않고 중당에는 인간 개개인이 모  
든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는  
그런 것을 말하며 마침내 죄에서의 해  
방, 그것을 궁극적인 평화라고 보는  
것이다. 인간의 내적 평화, 자기 자신  
안에서의 갈등에서 해방됨이 없이 참  
평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.

인간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. 그  
와 동시에 인간역사를 꿰뚫고 계속되  
는 영원한 평화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 
전쟁이 그칠 날이 없음은 평화를 위  
한 노력이 평면적인데서 맴돌고 있기  
때문이다.

이 평화는 소위 무사태평(無事太平)  
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. 그러한 평화  
는 고인 물같은 것으로서 비록 잔잔  
할지는 모르나 그대로 썩어버리는 그  
런 것이 될 수 있다. 이 평화는 「주  
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」 주어지는  
평화다.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  
을 뜻하는지 지금까지 구구한 해석이

있었다. 오랫동안 이것은 참 종교적  
이요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석해  
왔다. 그러나 어떤 사본에는 “하나님  
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”이라고 되어  
있다. 이 뜻에 따르면 사람의 행위에  
그 기준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행위  
에 그 중심이 있다. 이것은 새 역사  
의 출발을 전제하고 있다. 따라서 어  
떤 이는 새 시대에 선택된 공동체라고  
했는데 이 해석이 가장 옳을 것이다.  
이 평화는 과거의 질서를 유지하는  
그런 것이 아니다. 새 역사의 시작이  
다. 이 새 역사를 믿고 거기에 참여  
하는 사람에게 참 평화가 임할 것이  
라는 말이다. 참 궁극적인 평화의 미  
태를 믿고 그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  
에게는 현실은 아직 싸움일 수 있다.  
그러나 그러한 싸움은 아래로 흐르는  
물에 부딪치는 물에 의해서 잠깐 생  
기는 물거품같은 것이다.

그런데 이 노래는 가장 근본문제를  
전제하고 있다. 그것은 이 땅위의 인  
간들의 궁극적인 평화는 지평선(地平  
線)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, 그것을  
넘어서서 온 우주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 
사실이다. 「가장 높은데서」이 땅에 이  
르기까지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.

이 천사의 노래는 이 지구상의 평  
화를 고려했지 않았다. 그것을 우  
주적으로 확대했으며 그것을 연결시  
켰다. 위가 없는 아래가 없고 아버지  
없는 아들이 없듯이 위에 있는 이를  
전제하지 않은 땅위의 인간이란 있을

수 없다. 사랑하는이의 마음을 괴롭  
히는 마음의 평화나, 부모를 기쁘게  
못하고 자식의 평화가 생각될 수 없  
듯이 가장 높은 곳에서의 평화없이  
땅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. 그런뜻  
에서 땅위의 평화는 말하기 전에 “지  
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 
요”라는 것을 앞세우고 있다.

「하나님께 영광」이란 말은 한 마디  
로 하나님의 주권(主權)을 그에게 그  
대로 돌리는 일이다. 그것은 반대로  
말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기영  
역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. 모든 싸  
움의 불씨는 자기의 위치를 상실하고  
자기를 넘어서려는데서 온다. 세계전  
쟁의 원인은 자기의 분깃을 넘어서려  
는데서 오며 인간의 갈등도 제 한계  
성에 대한 물각에서 온다. 이 땅위의  
평화는 인간의 한계를 지킬 때만 있을  
수 있다. 이것은 인간이 모두 한뜻에  
(지극히 높은데) 그 초점을 모으고  
그것을 위해 살 때만 올 수 있는 것이  
다. 이것이 땅과 하늘, 인간과 하나  
님의 화해의 길이다. 이러한 사실은  
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물각되며 그럴  
때 평화는 파괴된다.

「크리스마스」 그것은 바로 이러한  
사실의 실증이며, 영원한 증거다. 따  
라서 이 천사의 선포는 특정한 종교  
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바  
로 전쟁속에 사는 인류 전체에게 주는  
기쁜 소식임과 동시에 언제나 새롭게  
울리는 경종이다.